

#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가족유형 및 가족 의사소통과의 관계

김 인 경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가족관계의 관련성을 조사하고자 13세에서 23세 남자 청소년 57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척도와 가족관계 척도 그리고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에 응답하도록 했다. 그 결과, 상상속의 청중 경향이 청소년 중기 이후 증가했으며 개인적 우화에서는 연령차이가 없었다. 고교생을 둔 가정의 경우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모두에서 취약하였고 고교생의 경우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적어지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증가하는 발달적 변화를 보였다. 가족체계의 응집성 차원에서 밀착 가정과, 적응성 차원에 있어서 혼란 가정의 청소년들에게서 상상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응집성과 적응성 차원 각각이 균형을 이루는 가정의 청소년들은 전반적인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경향성이 다소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부모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은 상상속의 청중 경향이 높았다. 이런 결과들은 가정 관계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대인 관계 기술과 지식 습득에 유용한 역할을 하며,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도 관련됨을 시사한다.

## 1.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에 관한 새로운 변인의 탐색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에 관한 Elkind의 초기 가설은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과 관련시켜 이 개념을 설명해왔다. 초기 청소년기가 되면 인지 발달의 마지막 단계인 형식적 조작 사고가 생기는데, 이런 새로운 추상적 사고 능력과 더불어, 이 시기에 생긴 신체 변화(사춘기)는 청소년에게 자신에 대한 특별한 전환기적 관심을 두게 한다. 이때 '상상속의 청중(imaginary audience)'과 '개인적 우화(personal fable)'이라고 일컫는 왜곡된 지각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그 후 형식적 조작 사고가 견

고해지고, 청소년기 동안 친구와 긴밀한 우정관계를 유지하여 다른 또래들의 생각, 감정, 관점을 이해하게 되면, 이런 왜곡된 지각은 점차 소멸된다. 결론적으로 Elkind의 관점은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란 형식적 조작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이고, 사고의 분화가 불완전하여 발생된 청소년기의 행동적 특성으로, 대인관계 경험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간의 사고의 차이를 구분하고 이해하면 해소되는 사고의 오류이다(Elkind, 1967, 1978).

그러나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에 관한 인지발달 관점의 설명이 가진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Lapsley & Murphy, 1985 ; Lapsley & Rice, 1987). 첫째, 형식적 조작 사고가 통합되는 청소년 후

기에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 감소(극복)한다는 Elkind의 가정과 관련된다. 다시 말해서, Piaget 이론에서 인지적 자아중심성은 각 발달 단계가 새롭게 시작할 때 나타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사라진다. 그러므로 Piaget의 견해는 각 단계에서 나타난 자아중심성은 다음 단계의 인지능력으로 전환(transformation)하는 과정에서 극복되나, Elkind는 형식 조작 사고가 견고화(consolidation)된 후에 극복된다고 설명하므로, 이 둘 간에는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Piaget식의 설명에 따르면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소멸은 형식조작 사고 보다 더 발전된 다음 단계의 인지능력의 출현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Elkind의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Piaget식의 자아중심성은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없다.

둘째,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이론적 선행조건이 되는 타인의 사고를 인지하는 능력 만으로는 자아중심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은 타인의 생각을 인지할 때, 자신의 기존 관점을 배제해야 하나 이를 억제하지 못해서 자신의 견해가 포함되고 그 결과 타인의 관점을 “예상하기”보다는 자신의 관점을 “재현해 놓기”때문에 생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역할 수용 오류(role-taking error)는 어린 아동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속성이며(Selman, 1980) 형식 조작 사고가 가능한 청소년기의 속성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회인지적 관점에서는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진다.

세번째 문제점은 상상속의 청중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자의식 개념을 그 측정지표로 삼는 문제와 관련된다. 물론 이론과 측정의 조작적 정의가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상상속의 청중을 자의식 수준으로 측정된 자료들이 자아중심성의 속성을 얼마나 타당하게 설명하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또한 인지발달 관점의 경험적 연구들(김인경과

윤진, 1988 ; 윤진, 김인경, 및 김길청, 1989 ; Goossens, 1984 ; Gray & Hudson, 1984 ; Lapsley, Milstead, Quintana, Flannery & Buss, 1986 ; Pesce & Harding, 1986 ; Protinsky & Wilkerson, 1986)에서 비밀관적인 결과를 보임에 따라 자아중심성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을 모색하게 되었다. Blos는 정신역동적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자기중심적 행동 특성을 자아방어 기제로 설명했다. 즉, 청소년은 새롭게 경험하는 생리적 충동을 조절하고 새로운 사회적 역할기대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란 이 시기의 발달과업을 해결할 때 많은 심리적 갈등을 겪게된다. 특히, 내면화되어 있는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할 때 생기는 내적 갈등을 감소시키려는 방어적 노력이 자기중심적 행동으로 나타난다(Blos, 1967 ; Muuss, 1988).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사회상황의 행동양식을 또래와의 관계로부터 배워 이런 갈등을 감소시킨다.

사회인지적 관점에서는 조망수용 이론(theory of perspective taking ; Selman, 1980)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의 관계가 추론되기도 했다(Lapsley & Murphy, 1985). 다시 말해서, Selman의 3 수준에서 나타나는 자아를 관찰하는(observing self) 힘과 자신을 관리하는 주체 의식(personal agency)이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4 수준의 청소년들이 보다 큰 사회적 시야를 가지고 자신의 굳건한 자리를 확신있게 정할 수 있을 때, 이들은 가상적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의식할 필요가 없고 궁극적으로 자아중심성도 쇠퇴한다.

최근에 와서, 이와 같은 Blos와 Selman의 견해에서부터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을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적 통합이 모색되었다(Lapsley & Rice, 1987). 특히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여 개인의 개별성을 확립해가는 이 시기의 자아발달 과정에 초점을 두고, 이런 발달 과제를 해결하는 과

정에서 나타나는 청소년의 내적 심리적 상태의 변화에 관심을 가졌다. 이들은 우선, Blos(1967)의 이차 분리 개별화(secondary individuation-separation)와 Selman(1980)의 조망수용이론에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의 개념적 관계성을 추론하였다. 다시 말하면, 유아기 때의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이어서 청소년기에 또 다시 일어나는 이차 분리 개별화 과정에서 생기는 방어적 특성과 자신과 타인을 이해해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자기통제감이 행동으로 표현된 것을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라고 가설화했다.

여기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을 설명한 여러 관점들을 살펴보면, 자아중심성의 시작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원인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극복과 관련해서는 이 시기의 대인관계 상호작용 속에서 익힌 경험을 토대로 자신과 타인의 사고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때 자아중심성이 극복된다고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출현과 쇠퇴를 논의하는 전통적 관점에서 시행된 많은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은 인지 발달과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 따라서 이전 연구들에서 간과해온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소멸 국면에 작용하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과정 동안의 환경요인, 특히 부모-자녀의 이인 상호작용 관계를 상정하고 이 두 변인이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했다.

## 2. 환경변인으로서 가족과 자아중심성의 관계

### (1) 환경요인으로서 가족

청소년기의 환경적 변화는 생물학적 변화보다 덜 급변하지만, 청소년기 특유한 환경 내의 구체적인 역사적인 변화들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선 이론적 관점과 연구

들에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내적 원인에 초점을 두어 설명해 왔으나 그 한계가 있어, 후속 연구에서는 인지 발달 수준 이외에 사회적 변인을 고려하도록 제안하고 있다(김인경과 장근영, 1992; Rosenroll, 1987). 그 이유는 자기중심적 행동 경향이 청소년기에 극적으로 증가하는 이 시기 특유의 발달적 현상이어서 개인 내적 변인 이외에 이 시기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설명변인으로 이런 비인지적 요인에 초점을 두는 또 다른 이유는 한 평생 발달 관점에서 청소년기가 차지하는 발달 특성 때문이다. 청소년기란 특히 범문화적으로 이 ‘시기’와 관련된 특별한 기대가 생기는 발달의 주요한 구분점이며, 성인과 유사해진 신체적 수용력 및 확대된 인지적, 사회적 성숙이 결합하여 전형적인 행동들이 질적으로 변화한다(Rogoff, Sellers, Pirrotta, Fox, & White, 1975). 이 시기에 일어나는 주요한 발달의 질적 변화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고과정이 구체적 조작을 넘어서 형식조작 사고로 완성되어 간다. 둘째, ‘사춘기’로 불리는 생리적 변화를 경험하고 이런 변화에 따른 신체적 성숙이 이루어진다. 셋째, 상급학교 진학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사회적 대인관계가 확대되고 새로운 대인관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넷째, 어느 시기 보다도 또래관계가 중요시되며 동성 또래와의 우정 및 이성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이 중요해진다. 다섯째, 부모의 사랑과 지원을 통해 얻은 인간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자신과 타인의 관점을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한편, 이 시기의 환경 요인의 변화가 커서 개인이 처하는 사회적 맥락과 그 영향력이 다양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집밖에서 보내는 시간과 또래와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며(Hartup, 1983; Maccoby, & Martin, 1983), 상급학교의 진학에 따른 사회적

영역이 확장되고(Minuchin, & Shapiro, 1983) 과외활동이 증가하며 아르바이트 등의 직업에 참여(Steinberg, Greenberger, Jacobi & Garduque, 1981)하는 경우도 생긴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기 발달은 유아기나 아동기와는 달리 예정된 발달계획(성숙)에 따라 성장하기 보다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 더 많은 영향(개인이 성장한 시기의 역사와 출생동시집단 변인 등)을 받는다. 따라서 환경적 변화를 간과한 채 개인 내적 요인만으로 청소년 발달을 설명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개인 및 환경 요인, 그리고 이 둘 간의 상호작용 모두에 관심을 두는 발달적 맥락주의(developmental contextualism) 관점에서 청소년 발달을 설명할 때(Lerner, 1986), 인생 전반에서 청소년 발달이 지니는 상대적 중요성, 그리고 다른 인생 주기와의 연계성을 살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시기의 다소 퇴행적 혹은 이탈적 행동 변화가 지니는 발달적 의미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런 맥락에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청소년 개인 변인, 그리고 그를 둘러싼 환경 변인의 관계를 검토한다면, 청소년기의 전형적 행동 특징을 설명하는 구인으로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이론적 배경에 관한 실증적 자료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청소년 전환기에 경험하는 외부 환경으로는 가족 체계와 또래 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어린 아동들은 성인과 자신들의 접촉을 단일한 사회적 체계로 여기는 반면에 청소년들은 성인 대 또래라는 두개의 분리된 사회 체계로 분리한다(Emmerich, Goldman & Shore, 1971). 또한 청소년들이 부모나 또래와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구분을 하는데, 부모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권위와 연륜을 행사하려 하며 또래는 경험과 관점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Hunter, 1984, 1985a, 1985b).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우정 관계에

대한 기대가 증가되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어린 시절보다도 친구들에게 더 많은 상호 지원과 배려 그리고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Berndt & Hoyle, 1985).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주요 환경을 가족관계를 상정하고, 특히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배양시키는 가장 초보적인 일차적 대인관계 맥락으로, 가족관계, 구체적으로 가족성원(부모)과의 대인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했다.

## (2) 가족 역동과 청소년 발달

청소년기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부모 자녀 관계의 발달은 분열되고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해 왔다. 일차적으로 가치관의 세대 차이 그리고 쇠퇴해 가는 부모의 영향력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이 경험하는 여러 다양한 양상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Collins, 1990).

첫째, 이 시기의 변화를 가족들이 가족의 한 구성원(청소년 자녀)의 변화에 적응해가는 적응 과정의 일부로 보는 관점이다. 이런 과정은 변형(transformation)과 재정렬(realignment)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즉, 친밀하고 온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과정인 동시에, 청소년 자녀의 변화해가는 지식과 기술, 선입관(predilection)에 적응하기 위해 가족 상호작용의 형태와 영향력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말한다. 비록 이런 변화들이 부모 자녀간의 상호작용에 있어 의견충돌과 상호 의존을 감소시킬지라도, 이러한 심리적 동요들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해 장기적인 애착을 갖는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런 변화는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거래과정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둘째, 가족 관계의 변화가 청소년 발달의 기능적 중요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부모와

유사한 태도를 가진 청소년들의 경우 높은 도덕성과 자율성을 보이며, 가족 관계에서 청소년의 개체성은 물론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을 모두 익힐 수 있는 가족 상호작용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정체감 탐색과 역할 수용 기술 그리고 자아 발달에 있어 높은 성취 상태를 보였다(Grotevant & Cooper, 1985, 1986; Hauser, Powers, Noam, Jacobson, Weiss & Follansbee, 1984). 반면 가족은 사회적 무능력, 의존성, 소외, 폭력 행동, 청소년 비행, 반사회적 행동 등의 일차적인 근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Leigh & Peterson, 1986; Steinberg, 1987; Steinmertz, 1987). 일반적으로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청소년이 사회적 관계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지식, 태도, 가치, 행동을 가정 생활 경험에서 일차적으로 습득한다고 본다(Peterson & Leigh, 1991; Peterson & Rollins, 1987).

가족 내의 부모자녀 관계는 상호연결된 이차관계를 형성하여 부자관계, 모녀관계, 모자관계 등의 특수한 교환관계를 이룬다. 그리고 이들 관계에서 상호작용과 정서 및 지각 그리고 인지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과 부모와의 상호작용 빈도는 자녀가 청소년이 되면 적어진다. 가족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에 있어서도 자녀의 사춘기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비슷하게 유지되나, 아동기에는 양육활동의 형태로, 청소년기에는 가족활동의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자녀와 어머니 관계보다는 아버지 관계에서 놀이나 여가활동이 많이 나타난다(Montemayer & Brownlee, 1987).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청소년기에는 논쟁적 교환이 증가되고 교환의 내용도 달라진다(Montemayer, 1983). 초기 청소년기에는 일상적 문제(집안일, 적절한 옷차림, 말씨나 행동 등)와 관련된 부모 자녀 간의 의견 불일치가 나타나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성교제나 음주와 같

은 문제에서 갈등이 발생한다. 청소년과 어머니의 논쟁은 청소년의 신체적 변화가 두드러지는 시기에 더욱 빈번하다(Hill, Holmbeck, Mariow, Green & Lynch, 1985; Montemayer & Hanson, 1985; Steinberg, 1987, 1988). 상호작용에 있어서 상호호혜성과 상호의존성 정도는 청소년이 성숙함에 따라서 변화한다. 가족 구성원을 나타내는 인물들을 공간 배열하도록 하는 최근의 연구에서 아동들에 비해 청소년들이 가족 구성원의 힘을 상대적으로 약하게 지각했다(Feldman & Gehringer, 1988; Pipp, Shaver, Jennings, Lamborn & Fisher, 1985).

부모와 자녀간의 감정은 청소년기에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지속된다.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감정은 청소년의 사춘기 발달 수준과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Feldman & Gering, 1988; Hill, 1988; Papini & Sebby, 1987; Steinberg, 1981, 1988). 이러한 정서적인 동요에 관한 결과는 부모와 사춘기 자녀 간의 심리적 거리감의 증가 가설(Steinberg, 1988, 1989)을 지지한다.

또 다른 차원으로 부모 자녀 간에 서로의 기질, 관점 등을 고려하여 상대의 역할을 수용하는 능력이 일치하는 정도에 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부모와 청소년들이 서로에 대해 실제적인 혹은 그러리라고 추측하는 서로의 관점이 불일치한다는 사실이, 부모 자녀관계 및 가족기능과 관련된 여러 연구에서 검증되었다(Alessandri & Wozzniak, 1987). 특히 연령과 관련된 이런 지각 불일치 패턴은 지각 내용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지각 불일치가 일어나는 방향과 정도에서도 청소년기의 특징이 나타났다(Alessandri & Wozniak, 1987; Smetana, 1988).

특히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 내의 부모 자녀관계는 자녀의 청소년기 발달 특성(사춘기 발달 및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그리고 자아정체감 형성)과 부모의 성인기 발달의 특징(자녀의 독립에

다른 중년기 위기감)에 의해 영향받는다. Olson과 Russell 그리고 Sprenkle(1979, 1983)은 순환 모형(Circumplex Model)으로 가족과 청소년의 상호작용 과정을 설명했다. 이들은 가족을 가족응집성(family cohesion), 가족의 변화 및 적응(family change or adaptability), 갈등의 해결(conflict resolution), 가족 위계(family hierarchy), 가족 의사소통(communication) 등의 측면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여기서 두가지 주요 차원으로, 먼저 가족 성원이 서로에게서 느끼는 정서적 유대의 정도를 나타내는 가족응집성(family cohesion)이 있다. 응집성이 지나치게 높은 가족은 가족 성원들의 사적 요소가 차단되고 과도한 소속감으로 인해 독립적인 행동을 할 기회가 없다. 그러나 응집성이 지나치게 낮은 가정은 가족 성원들이 자신의 일을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하며, 가족 내의 애착과 참여가 제한적이며서 대인관계 능력이 부족하기 쉽다. 반면에 가족 성원의 독자성과 유대감을 조화시킬 수 있는 중간 정도의 응집성을 보이는 가족관계는 청소년의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Olson, 1986).

또 다른 한 차원은 가족 내의 각 성원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지위에 따른 권력구조와 역할관계 그리고 관계규칙들을 변화시켜서 상황적, 발달적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가족의 적응성(family adaptability) 정도이다. 적응성도 응집성과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가족 기능과는 곡선적 관계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대략적으로 규칙을 계획하고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며 자녀의 선택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자녀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가정환경이 청소년 발달에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가족 내의 갈등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갈등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 경험을 피하기 위해 극단적 방법을 흔히 사용하는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사회적 대인관계 상황에서 긍정적 해결능

력이 낮고 대신 공격성이 높았다(Robertson & Simmons, 1989).

### (3)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청소년기의 발달

부모와 청소년들은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에서 그들만의 대화의 양식을 형성하고, 의미를 부여한다(Leigh, 1986). 이런 의사소통의 의미와 방식은 정보 전달 이외에 가족 성원 간의 관계성, 경계, 연결망, 상호작용에서의 규칙을 정의하는 기능을 하며 가족 내의 변화의 속도까지도 조절한다(Galvin & Brommel, 1982; Leigh, 1986). 가족들이 사용하는 지지적이고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발적인 문제해결을 촉진하고 감정이입적 이해를 돕고 구성원 간의 평등성을 촉진한다. 반면에 방어적이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험담과 비난 그리고 통제와 권력다툼을 포함하며, 이런 의사소통 유형은 부모와 자녀 모두 갈등의 해소기술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에 빈번히 사용되며(Barnes & Olson, 1982), 이런 위협적이고 처벌적인 의사소통 경험은 세대 간의 대물림으로 나타나기도 한다(Alexander & Barton, 1976). 학습 부진을 보이는 아동의 부모 중 87%가 높은 부정적 의사소통을 보였고(Ditton, Green & Singer, 1987), 국내 청소년 연구에서 부모와 자녀가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청소년 문제 행동을 적게 나타냈다(정명희, 1987). 반응적이고 감정이입적인 어머니의 자녀는 조망 수용 과제에서 감정이나 의도를 더 많이 고려했으나 권위적 어머니의 자녀는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더 많이 했다(Schutze, 1984; Light, 1979; Sroufe, 1983).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높은 수준의 도덕 판단과 이해를 키우는데 더 도움이 된다. 특히 사회성 발달로 어느 정도의 감정이입, 신뢰감, 충성, 도덕성과 같은 개념에 대한 경험적 이해가 이루어지면 개방적 의사소통(open communication)과 상호적 이해의 증가를 보였다(Berndt, 1982;

Bigelow, 1977).

결론적으로 가족관계는 청소년 발달의 일차적인 사회적 맥락이며,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부모에 대해 긍정적이며 가족에 대해 온정적 입장을 취한다. 한편,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형태와 방식을 통해 가족관계가 변화한다. 즉, 청소년기의 부모자녀 간에는 일시적으로 논쟁이 증가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해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며, 가족활동에 참여하는 정도에 대해서도 부모와 청소년 간의 지각에 차이가 있으며, 그리고 가족성원 간의 친밀감과 응집력, 긍정적인 관심도 적게 표현된다. 청소년의 연령과 사춘기의 발달상태 모두가 이런 변화와 관련을 갖는다 (Peterson & Leigh, 1991). 따라서 청소년기의 가족관계를 고정관념처럼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적응과 변형이 진행되는 시기이며, 이 시기의 부모 자녀관계의 변화와 관련되는 결정요인들과 그 특징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4) 부모태도와 자아중심성 간의 관계연구

부모 자녀관계와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관련성은 가족내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자아중심성이 극복된다고 전제한다. 청소년이 부모의 태도를 어떻게 지각하는지가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관련되는데, 특히 부모를 거부적이고 통제적이라고 지각하는 소년의 경우 자아중심성이 높았고, 부모와 신체적 애정표현을 많이 하는 소녀들이 자아중심성이 낮았다 (Adams & Jones, 1981, 1982).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와 수용적이고 애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인정받으며 사랑받는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자아중심성이 낮았으나, 부모 태도를 통제와 지나친 방임이나 구속 상태로 지각하는 경우 자아중심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김인경과 윤진, 1988).

따라서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애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

신의 존재가치를 의도적으로 드러낼 필요를 덜 느끼게 하여 타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한 예민함이 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부모의 지나친 통제와 과보호 또는 무관심은 무력한 자신, 타인의 관심 밖인 자신의 존재를 타인에게 드러내서 알리고 인정받으려는 욕구 때문에 타인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예민해질 수 있다.

비행 청소년들은 부모(특히 아버지)에 대해 부정적인 지각을 보이는 동시에 자아중심성 성향도 높았다 (Anolik, 1981). 일반 청소년의 자아중심성 성향의 절정이 13세인 반면, 비행 집단의 경우 평균 15세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늦게 나타나는 발달 지체를 보였다. 이런 결과는 국내 연구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윤진, 김인경, 및 김길청, 1989). 비행 집단의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지지적 태도가 불충분한 가정생활 경험 때문에 사회적 상황에서 상상속의 청중에 대한 의식이 강해지고 따라서 일반적인 사회상황에 대한 적응력도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비행 청소년의 경우 일반 청소년들과는 달리 그들의 실제 가정 생활의 역동 관계에서 특이한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경험이 부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친구 관계나 학교 생활 맥락에서 더욱 강력한 사회화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비행 집단과 일반 집단 모두 아버지가 지나치게 통제적이거나 어머니가 무관심하고 과잉보호한다고 지각할수록 자아중심성이 높았다.

그러므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 대인관계 경험을 통해서 성숙된다고 가정할 때,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습득한 부모와 가족 성원과의 관계 유지 경험과 기술은 곧 사회적 대인관계 능력과 타인에 대한 이해에 반영될 것이며 이는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따라서 가정 생활에서 부모로부터의 지지가 불

충분했었던 경험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에 대한 불신과 타인에게 드러날 자신의 모습에 대한 민감성을 높혀서, 사회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낮추며 상상속의 청중에 대한 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애정과 지지가 부족했던 가정에 대한 불만이 이 시기의 발달적 특징인 또래 선호와 또래의 지지를 추구하는 등으로 바뀌면서, 가정 내의 부모보다는 친구 관계나 학교 생활 등의 다른 사회적 맥락에 의존한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게 한다. 따라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을 청소년 발달, 부모와 청소년 간의 대인관계 과정(interpersonal process)의 영향과 관련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들의 일상적 가정생활 경험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관련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했다. 적절한 수준의 가족의 응집성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독자성을 지니면서 서로 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청소년기의 발달과제인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의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고 가족이외의 타인과의 사회적 대인관계 기술 습득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적절한 가족의 적응성과 합리적 갈등 해결 방법은 청소년 개인의 문제 해결 능력과 사회에 대한 신뢰 및 합리적인 사고의 발달에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자유롭고 지지적인 의사소통 경험은 청소년이 타인과 신뢰로운 자세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키게 한다. 이런 경험으로부터 생긴 청소년의 유능성은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이론들에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에 대해 대인관계 경험과 기술이 자신과 타인의 관점에 대한 성숙된 이해를 돕는다고 가정할 때, 가정에서 습득한 부모와의 관계 유지 경험과 기술은 곧 사회적 대인관계 능력에 반영되어 청소년의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도울 것이며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정을 검토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적절한 수준으로 지각하는 경우에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은 낮을 것이며, 부모와의 긍정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경우에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했다.

## 방 법

### 조사대상자

서울 시내 4개 지역 소재 중학교 1학년(92명), 2학년(97명), 3학년(97명)과 고등학교 1학년(80명), 2학년(83명) 2학년급과 서울 소재 1개 대학(30명)과 지방소재 1개 대학(39명), 그리고 지방소재의 2개 전문 대학(38명)에서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570명의 남학생을 표집하였다.

### 측정도구

#### 1.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측정

Lapsley, FitzGerald, Rice와 Jackson(1989)의 상상속의 청중 척도(New Imaginary Audience Scale : NIAS)와 개인적 우화 척도(New Personal Fable Scale : NPFS)의 한국판(김인경과 장근영, 1993; 장근영과 윤진, 1993)을 사용했다. NIAS는 대상 관계 상념(object relational ideation), 대인관계적 환상(interpersonal fantasies), 자아에 대한 이상적 상(visions of the self)을 내용으로 포함하는 전체 42문항의 4점 likert 척도이다. 그리고 각 개인들이 평소에 이런 내용의 백일몽을 얼마나 자주 상상하는지를 답하게 했다. 문항의 예는 '내가 유명해진다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상상해 보는 일', '이성친구로부터 거절당하는 내모습', '위험에서 친구를 구하는 내모습' 등이며, 이에 대해서 '전혀 없다'



응답은 1점이고 '자주 있다'는 4점으로 자기보고식 평정을 하였고 높은 총점은 상상속의 청중 상념이 높음을 의미했다. NPFS는 개인적 독특감(feelings of personal uniqueness), 전지전능함(omnipotence), 불멸감(invulnerability)을 내용으로 하는 46 문항의 3점 척도다. 문항의 예는 '나는 내가 마음먹은 것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내가 남들과는 다르다고 믿는다', '나는 다른 사람들은 피하지 못하는 사건도 피할 수 있다' 등으로 되어 있다. 이 척도의 응답에서 1점은 '전혀 아니다'에서 3점은 '매우 그렇다'의 정도로 자기보고식 평정을 하였고 높은 총점은 개인적 우화 상념이 높음을 의미했다. 각 척도의 신뢰도(Chronbach  $\alpha$ )는 NIAS가 .91이고 NPFS는 .75이었다.

## 2. 가족 역동 측정

가족 역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Olson과 Portner 그리고 Lavee(1985)에 의해 제작된 가족 적응성과 응집성 평가 척도(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II : FACES III)의 한국어 판(민혜영, 1990; 한상분, 1992)을 사용했다. 이 척도는 순환 모형(Circumplex Model)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FACES 척도 중의 세번째 판으로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총 20문항의 자기보고식 5점 Likert 척도이다. 하위 차원으로 가족 응집성(10문항)은 1) 정서적 유대(emotional bonding), 2) 경계(boundaries), 3) 단결(coalitions), 4) 시간(time), 5) 공간(space), 6) 친구(friends), 7) 의사결정(decision making) 및 8) 흥미와 여가(interests and recreation)의 8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점수에서 가장 낮은 점수의 순서로 밀착(enmeshed), 연결(connected), 분리(separated), 이탈(disengaged)의 4 수준의 가족 응집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응집성의 중간 수준인 연결과 분리 수준의 가족이

가장 기능적 환경이라고 해석한다. 또 다른 차원인 가족 적응성(10문항)도 1) 주장(assertiveness), 2) 통제(control), 3) 훈육(discipline), 4) 타협 유형(negotiation styles), 5) 역할 관계(role relationships), 6) 관계 규칙(relationship rules)의 6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점수에서 가장 낮은 점수의 순서로 혼돈(chaotic), 융통(flexible), 구조(structured), 경직(rigid)의 4 수준의 가족 적응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 차원 역시 중간 수준인 융통과 구조 수준의 가족이 가장 기능적임을 의미한다. 각 문항이 자신의 가족과 얼마나 비슷하게 묘사하는지를 응답하는데,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은 '항상 그렇다'의 정도로 평정하도록 했다. 이 척도의 신뢰도(Chronbach  $\alpha$ )는 .63에서 .82이었다.

## 3. 가족 의사소통 측정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Barnes와 Olson(1982)에 의해 제작된 부모-청소년 의사소통 질문지(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 PACI)의 한국어 판(민혜영, 1990)을 사용했다. 두개의 하위 척도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째는 개방적 의사소통(open communication)으로 정확하고 모순되지 않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감정 이입과 지지적 발언 및 효과적인 문제 해결 기술을 지닌 긍정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말한다. 두번째는 역기능적 의사소통(problem communication)으로 일치되지 않고 모순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부정적 발언을 하고 이중속박(double-bind) 및 빈약한 문제 해결 기술을 지닌 부정적 의사소통 유형을 말한다. 총 20문항으로 각 하위 척도에 10문항씩 포함되며, 5점 Likert 척도로서 1점은 '항상 그렇다'에서 5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로 답하도록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각기 따로 응답하도록 했으며 본 척도의 신뢰도(Chronbach  $\alpha$ )는 .85와 .86이

였다.

**절차**

실시 요령을 숙지한 연구원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각 학급을 방문하여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척도와 가족 관계 척도 그리고 의사소통 척도 및 개인의 신상에 관계하는 질문들에 대한 집단 검사를 실시하였다. 대학 집단은 심리학 개론의 수업 시간을 이용해서 집단 검사를 실시하였고 총 소요 시간은 30분 정도였다.

**결 과**

**1. 연령에 따른 각 변인들의 발달적 차이**

연령 증가에 따른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발달 측정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했다. 그 하위개념인 상상속의 청중 영역에서 유의한 연령차이( $F_{5,499} = 4.2090, p < .01$ )를 보여, 고교와 대학

집단에서 상상속의 청중 상념이 높았다. 반면, 개인적 우화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하위 영역인 불멸감( $F_{5,531} = 1.8742, p < .0971$ )에서 청소년 초기인 중학 1년 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그 경향이 다소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표 2에 제시된 연령 증가에 따른 가족체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가족의 응집성( $F_{5,515} = 2.0984, p < .0643$ )과 적응성( $F_{5,524} = 1.7349, p < .1249$ )에서 고교생을 둔 가정이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 모두에서 다소 취약함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그러나 응집성의 하위 영역인 시간과 친구의 영역( $F_{5,534} = 4.1509, p < .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고교 집단의 경우 타 집단에 비해 시간과 친구 관계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 그리고 여가 영역( $F_{5,531} = 2.0424, p < .0713$ )에서도 고교집단이 다소 제한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적응성의 하위영역인 리더쉽( $F_{5,533} = 2.6144, p < .05$ )과 역할규칙( $F_{5,532} = 2.4477, p < .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고교생의

**표 1. 연령에 따른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측정치의 평균과 표준편차**

	중 1	중 2	중 3	고 1	고 2	대 학	전 체
상상속의 청중	83.33** (13.04)	85.41** (14.12)	81.34** (15.02)	87.46** (13.29)	87.00** (12.02)	89.22** (11.61)	85.60 (13.42)
개인적 우화	67.76 (4.14)	68.17 (4.15)	67.65 (4.06)	68.25 (3.64)	67.62 (4.37)	67.75 (4.97)	67.85 (4.25)
독특감	29.45 (2.22)	29.60 (2.01)	29.92 (2.08)	30.09 (2.08)	29.86 (2.14)	28.50 (2.44)	29.71 (2.17)
불멸감	5.29 <sup>+</sup> (.95)	5.08 <sup>+</sup> (.97)	4.92 <sup>+</sup> (.86)	5.17 <sup>+</sup> (1.01)	5.06 <sup>+</sup> (.87)	4.96 <sup>+</sup> (.94)	5.07 (.94)
전능감	25.64 (2.62)	26.05 (2.68)	25.54 (2.70)	25.65 (2.46)	25.48 (2.90)	26.11 (2.84)	25.75 (2.71)

( ) 안은 표준편차 \*\*  $p < .01$  <sup>+</sup>  $p < .1$

경우 타 집단에 비해 가족 생활에서 역할과 참여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나 통제 영역( $F_{5,535} = 1.9726, p < .0811$ )에서는 중학 2, 3년 집단이 자신

들의 통제력이 다소 적다고 보고했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표 3에 연령에 따른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양상

**표 2. 연령에 따른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측정치의 평균과 표준편차**

	중 1	중 2	중 3	고 1	고 2	대 학	전 체
응집성	35.62 <sup>+</sup> (7.17)	34.30 <sup>+</sup> (7.29)	33.17 <sup>+</sup> (7.76)	32.58 <sup>+</sup> (7.51)	32.40 <sup>+</sup> (8.75)	34.00 <sup>+</sup> (6.62)	33.65 (7.56)
정서적 유대	8.17 (1.81)	7.91 (2.02)	7.74 (1.82)	7.82 (2.02)	7.66 (2.19)	7.94 (1.54)	7.87 (1.89)
지지	6.91 (1.82)	6.59 (1.99)	6.61 (1.97)	6.47 (1.80)	6.50 (2.06)	6.42 (1.68)	6.62 (1.88)
경계	6.28 (2.09)	6.52 (2.06)	6.20 (1.99)	6.06 (2.13)	6.15 (2.17)	6.47 (1.77)	6.28 (2.03)
시간과 친구	7.45 <sup>**</sup> (2.01)	6.74 <sup>**</sup> (1.97)	6.29 <sup>**</sup> (2.02)	6.04 <sup>**</sup> (1.78)	6.07 <sup>**</sup> (2.16)	6.58 <sup>**</sup> (1.49)	6.47 (1.93)
여가	6.69 <sup>+</sup> (1.85)	6.65 <sup>+</sup> (1.69)	6.39 <sup>+</sup> (1.86)	5.95 <sup>+</sup> (1.88)	6.17 <sup>+</sup> (2.04)	6.48 <sup>+</sup> (1.53)	6.39 (1.84)
적응성	31.71 (6.39)	30.00 (6.82)	31.10 (7.56)	29.59 (6.88)	29.21 (7.06)	30.81 (5.81)	30.41 (6.78)
리더쉽	5.76 <sup>*</sup> (1.84)	5.43 <sup>*</sup> (1.90)	5.44 <sup>*</sup> (2.19)	5.33 <sup>*</sup> (2.06)	4.69 <sup>*</sup> (2.07)	5.41 <sup>*</sup> (1.99)	5.35 (2.02)
통제	6.81 <sup>+</sup> (2.27)	6.02 <sup>+</sup> (2.22)	6.42 <sup>+</sup> (2.29)	6.32 <sup>+</sup> (2.32)	6.41 <sup>+</sup> (2.27)	6.88 <sup>+</sup> (1.82)	6.47 (2.20)
훈육	6.01 (2.11)	5.59 (2.35)	6.02 (2.28)	5.82 (2.12)	5.82 (2.19)	6.33 (1.81)	6.00 (2.14)
역할 규칙	13.12 <sup>*</sup> (2.67)	12.61 <sup>*</sup> (2.75)	13.15 <sup>*</sup> (2.83)	12.20 <sup>*</sup> (2.55)	12.28 <sup>*</sup> (2.73)	12.27 <sup>*</sup> (2.48)	12.60 (2.65)

( ) 안은 표준편차 \*\* $p < .01$  \* $p < .05$  + $p < .1$

을 제시했다. 먼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서 일반적인 의사소통의 량( $F_{5,506} = 3.9080, p < .01$ )에서 유의한 연령 차이를 보였는데, 청소년기 중기에 해당하는 중학 3년과 고교 1년의 시기에 아버지와 가장 적은 의사소통을 하여 U 자 형태의 곡선을 보이고 있다. 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F_{5,520} = 4.0010, p < .01$ )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F_{5,514} = 4.6595, p < .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타 집단에 비해 고교 집단의 경우 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적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많은 부정적인 의사소통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양상을 보면, 일반적인 의사소통의 량( $F_{5,521} = 2.8165, p < .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중학 3년과 대학 집단에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적으며 고교 집단의 경우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잘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F_{5,523} = 2.4171, p < .05$ )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F_{5,512} = 2.0677, p < .068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에서 중학 3년이 줄었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중학 1년 이후 늘어났다.

한편 청소년이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한 의사소통의 차이는 그 량( $t(506) = 21.60, p < .01$ )은 물론, 개방적 의사소통( $t(515) = 14.17, p < .01$ ) 그리고 역기능적 의사소통( $t(500) = 7.07, p < .01$ )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전반

**표 3. 연령에 따른 부모와의 의사소통 측정치의 평균과 표준편차**

	중 1	중 2	중 3	고 1	고 2	대 학	전 체
<b>아버지</b>							
개방적 의사소통	32.60** (8.11)	31.10** (9.11)	29.80** (8.70)	28.34** (8.46)	27.82** (7.69)	30.52** (6.58)	30.04a (8.24)
역기능적 의사소통	25.22** (5.33)	25.76** (6.08)	25.22** (5.71)	26.88** (6.48)	28.67** (6.31)	27.16** (4.54)	26.47b (5.83)
의사소통 량	4.76** (1.68)	4.54** (1.75)	3.93** (1.57)	3.88** (1.58)	4.35** (1.41)	4.25** (1.41)	4.27c (1.59)
<b>어머니</b>							
개방적 의사소통	38.42* (7.61)	35.31* (8.32)	34.79* (8.52)	35.21* (8.16)	36.00* (7.63)	36.39* (5.68)	35.96a (7.72)
역기능적 의사소통	22.68+ (5.89)	25.12+ (6.59)	24.40+ (6.02)	24.85+ (6.09)	25.11+ (5.00)	24.51+ (4.56)	24.46b (5.72)
의사소통 량	6.18** (1.47)	5.78** (1.64)	5.35** (1.65)	5.65** (1.76)	5.69** (1.44)	5.46** (1.59)	5.66c (1.61)

( ) 안은 표준편차 \*\* $p < .01$  \* $p < .05$  + $p < .1$  a  $p < .1$  b  $p < .1$  c  $p < .1$

적으로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와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있으며,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와 개방적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지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적었다.

2. 가족 체계 유형에 의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관련성

표 4에 가족의 응집성 4 수준에 따른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경향을 제시했다. 상상속의 청중( $F_{3,486} = 4.3667, p < .01$ )과 개인적 우화( $F_{3,486} = 11.9008, p < .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 영역인 전능감( $F_{3,501} = 22.5441, p < .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가족 응집성이 낮은 이탈 집단이 밀착 집단에 비해 상상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 그리고 전능감 모두에서 그 경향이 낮았다.

표 4. 가족의 응집성 수준별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이탈	분리	연결	밀착	전체
상상속의 청중	81.74** (14.47)	85.05** (13.21)	86.63** (12.57)	88.61** (13.53)	85.56 (13.41)
개인적 우화	66.55** (4.09)	67.08** (4.10)	68.29** (4.14)	69.98** (4.22)	67.86 (4.27)
독특감	30.04 (2.09)	29.54 (2.18)	29.62 (2.19)	30.00 (2.03)	29.74 (2.15)
불명감	5.12 (.90)	5.02 (.97)	5.03 (.92)	5.27 (.99)	5.08 (.94)
전능감	24.18** (2.32)	25.38** (2.58)	26.25** (2.63)	27.10** (2.66)	25.73 (2.72)

( ) 안은 표준편차 \*\* $p < .01$

표 5에 가족의 적응성 4수준에 따른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경향을 제시했다. 상상속의 청중( $F_{3,495} = 6.0353, p < .01$ )과 개인적 우화( $F_{3,497} = 6.7641, p < .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하위 영역인 전능감 ( $F_{3,511} = 11.9549, p < .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가족 적응성이 적은 경직된 집단이 혼돈 집단에 비해 상상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 그리고 전능감 모두에서 그 경향이 다소 낮았다.

표 5. 가족의 적응성 수준별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경직	구조	융통	혼돈	전체
상상속의 청중	83.34** (14.12)	83.26** (13.34)	86.63** (13.06)	89.92** (12.50)	85.59 (13.43)
개인적 우화	66.86** (4.00)	67.44** (3.85)	67.78** (4.28)	69.55** (4.63)	67.82 (4.23)
독특감	29.88 (2.03)	29.78 (2.09)	29.49 (2.36)	29.94 (2.15)	29.73 (2.18)
불명감	5.13 (.86)	5.04 (.96)	5.04 (.88)	5.10 (1.05)	5.07 (.93)
전능감	24.57** (2.24)	25.45** (2.58)	25.95** (2.61)	26.88** (2.99)	25.72 (2.70)

( ) 안은 표준편차 \*\* $p < .01$

표 6에서 DFC(Distance from center of circumplex model ; CM의 균형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점수를 중앙값(median = 7.56)을 근거해서 상(균형에 가까운 집단), 하(균형에서 먼 집단)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간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경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결과, 상상속의 청중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개인적 우화( $F_{1,483} = 2.6318, p < .1054$ )에서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그리고 하위영역인 독

특감 ( $F_{1,506} = 5.0815, p < .05$ )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표 6에서 보듯이 CM의 균형점에 가까운 집단, 즉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균형을 이루는 집단의 경우 상상속의 청중과 개인적

**표 6.** DFC(상, 하)에 따른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DFC상	DFC 하	전 체
상상속의 청중	85.52 (13.02)	85.60 (13.77)	85.56 (13.39)
개인적 우화	67.49 <sup>+</sup> (3.970)	68.11 <sup>+</sup> (4.511)	67.80 (4.256)
독특감	29.53* (2.19)	29.96* (2.11)	29.74 (2.16)
불명감	5.02 (.93)	5.12 (.94)	5.07 (.93)
전능감	25.73 (2.58)	25.65 (2.83)	25.69 (2.70)

( )안은 표준편차 \* $p < .05$  <sup>+</sup> $p < .1$

**표 7.** FACES 에 의한 가족 분류에 따른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중			고			대학			전체		
	균형	중간	극단	균형	중간	극단	균형	중간	극단	균형	중간	극단
상상속의 청중	81.75 (14.12)	85.01 (12.52)	83.83 (16.23)	87.87 <sup>+</sup> (11.97)	87.32 <sup>+</sup> (12.90)	87.29 <sup>+</sup> (13.91)	88.35 (12.11)	87.00 (13.30)	92.71 (11.48)	85.02 (13.41)	86.08 (12.70)	85.71 (15.07)
개인적 우화	67.27** (3.74)	67.21** (3.74)	70.10** (4.77)	68.38* (4.11)	68.14* (3.94)	66.28* (3.80)	66.82 (4.54)	68.40 (5.23)	68.85 (5.11)	67.49a (4.05)	67.66a (3.99)	68.67a (4.77)

( )안은 표준편차 \*\* $p < .01$  <sup>+</sup> $p < .1$  a $p < .1$

우화, 독특감, 불명감에서 그 경향성이 일반적으로 낮은 추세를 보였고 전능감에서는 그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표 7 FACES의 가족 유형의 분류에 따른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경향을 제시했다. 전체 표집에 대해서 상상속의 청중 경향은 가족 유형에 따른 차이가 없었고 개인적 우화( $F_{2,482} = 2.4843, p < .0845$ )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균형을 이루는 가족에서 상상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 모두 낮았다.

각 연령 집단 내의 가족 유형에 따른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을 보면, 중학교 집단의 경우는 상상속의 청중 경향의 차이가 없었으나 개인적 우화( $F_{2,341} = 9.7750, p < .01$ )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집단에서는 상상속의 청중은 차이가 없었으나 개인적 우화( $F_{2,145} = 2.8766, p < .0595$ )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끝으로 대학교에서는 상상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 모두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학과 대학 집단에서 균형 가족에서 상상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 모두에서 낮았다. 그러나 고교 집단에서는 균형 가족에서 상상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 모두가 높았다.

**3.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표 8에 부모와의 의사소통유형별 의사소통 정도에 따른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했다. 자주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과 청

소년기 자아중심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을 보고한 정도( $\text{median} = 30$ )에 있어서 상상속의 청중은 차이가 없었고 개인적 우화( $F_{1.466} = 10.9612 \ p < .01$ )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하는 정도( $\text{median} = 26$ )에 있어서 상상속의 청중( $F_{1.445} = 3.5652. \ p < .01$ )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고 개인적 우화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극단 가족에 비해 균형 가족이 아버지와 개방적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적었다.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F_{2.499} = 2.7763, \ p < .0632$ )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F_{2.494} = 3.2488, \ p < .05$ )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중간 가족의 경우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많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적었다.

표 8.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아버지				어머니			
	개방적		역기능적		개방적		역기능적	
	많음	적음	많음	적음	많음	적음	많음	적음
상상속의 청중	87.76 (11.79)	86.74 (12.88)	88.55 <sup>+</sup> (12.19)	84.81 <sup>+</sup> (11.74)	89.06 <sup>**</sup> (10.83)	85.36 <sup>**</sup> (14.11)	90.36 <sup>**</sup> (13.20)	85.57 <sup>**</sup> (10.95)
개인적 우화	69.06 <sup>**</sup> (3.79)	67.06 <sup>**</sup> (3.84)	67.64 (3.91)	68.01 (3.45)	68.10 <sup>+</sup> (4.11)	67.72 <sup>+</sup> (3.96)	68.25 (4.04)	67.62 (3.89)

( ) 안은 표준편차 <sup>\*\*</sup> $p < .01$  <sup>+</sup> $p < .1$

의사소통의 유형에 상관없이 아버지와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상상속의 청중 경향이 높았다.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정도( $\text{median} = 36$ )에 있어서 상상속의 청중( $F_{1.465} = 9.7134 \ p < .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개인적 우화( $F_{1.465} = 3.6675 \ p < .0561$ )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하는 정도( $\text{median} = 24$ )에 있어서 상상속의 청중( $F_{1.451} = 7.8537 \ p < .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개인적 우화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의사소통의 유형에 상관없이 어머니와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상상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 경향이 높았다.

표 9에 FACES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가족 유형과 부모 자녀 의사소통과의 관계를 제시했다. 각 가족 유형에서 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F_{2.496} = 2.4227, \ p < .0898$ )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표 9. FACES에 의한 가족 분류에 따른 의사소통의 평균과 표준편차

	균형가족	중간가족	극단가족	전체
아버지				
개방적 의사소통	30.31 <sup>+</sup> (6.36)	30.61 <sup>+</sup> (8.77)	28.25 <sup>+</sup> (11.93)	30.04 (8.34)
역기능적 의사소통	26.23 (5.23)	26.22 (5.97)	27.29 (7.30)	26.42 (5.88)
어머니				
개방적 의사소통	35.71 <sup>+</sup> (6.24)	37.09 <sup>+</sup> (8.03)	34.77 <sup>+</sup> (10.83)	35.95 (7.84)
역기능적 의사소통	24.96* (5.28)	23.44* (5.89)	24.63* (6.79)	24.45 (5.78)

( ) 안은 표준편차 \* $p < .05$  <sup>+</sup> $p < .1$

## 논 의

### 1. 연령에 따른 각 변인들의 발달적 차이

먼저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연령 증가에 따른 발달적 변화는 청소년 초기 이후 중기에서 급증함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결과는 기존연구들과는 차이가 있으나, 국내연구 결과와는 일치하고 있다(김인경과 장근영, 1993; 장근영과 윤진, 1993).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그 이유는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개념에는 초기 청소년기의 발달적 미성숙으로 인한 '왜곡된 자기에 대한 환상'이라는 정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내 연구 결과는 다수의 우리 청소년을 발달적 미성숙 내지는 발달지체로 해석하게끔 한다. 이런 해석의 한 측면은 실제로 우리 청소년들이 발달적 미성숙 내지는 발달적 지체를 보일 가능성이고, 또 다른 가능성은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내용이 과연 부정적 부산물이어서, 청소년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원론적 문제이다. 이와 같은 해석을 하게 되는 이유로는 청소년들이 처한 문화적 환경의 차이와, 본 연구자와 앞선 연구자들이 사용해온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정의 및 측정도구의 문제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우리 문화 내의 대인관계 장면에는 전통적으로 "체면"이라는 의식구조가 지배하고 있다. 이런 체면은 평등지향적이고 개인주의적 사회에 비해 타인의식적이고 신분지향적인 권위주위적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교환차원으로 작용한다(최상진, 1993; 최상진과 유승엽, 1992). 다시 말하면, "체면"은 나, 혹은 나와 관련된 사람이나 사건 등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또 한편으로, 지속적으로 자신에 관해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을 탐

색하며 자신의 사고를 숙고하는 자의식(self-consciousness) 경향의 경우, 우리 대학생이 미국 대학생에 비해 상당히 높다(양은주, 1992). 그러므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개념적 정의에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민감성'이란 측면은 특히, 이런 문화적 가치에 의해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확고한 가부장제도와 조상숭배로 표현되는 강한 부자관계를 지닌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즉, 부모와 자녀가 서로 물리적으로 독립된 자율적 존재이기는 하나, 심리적으로는 성인기 이후까지도 의무와 권리가 지속적으로 남아서, 윤리적으로 승화되어 예절로 표현된 문화이다. 따라서 이런 개인의 개별화 과정을 덜 강조하는 우리문화의 특성이 우리나라 연구들(김인경과 장근영, 1992; 장근영과 윤진, 1992)에서 나타났던 청소년 중기 이후의 자아중심성의 증가 현상을 발달적 지연이라고 보다는 문화적 환경 요인의 차이에서 생긴 영향이라고 해석하게 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특히, 중기 청소년기에 대한 결과를 재분석한 결과에서 대학 1학년(상상속의 청중 = 90.11, 개인적 우화 = 65.59)에서 높게 나타났던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 2학년 이상 집단(상상속의 청중 = 88.70, 개인적 우화 = 67.81)에서는 감소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문제들은 외국에 거주하는 교포 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발달 양식을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의 발달 양식의 차이가 단순한 발달의 지연 현상인지 사회적 환경 요인의 영향인지를 이해할 수 있으며 그리고 기타 다른 문화적 요인의 영향도 시사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 우화의 하위 영역인 독특감, 불멸감, 전능감에서 나타나는 발달적 차이를 볼 때, '불사신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환상을 내용으로 하는 불멸감의 경우에는 중학 1학년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고 그후에 감소한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도한 확신을 내용으로 하는 진능감의 경우에는 대학 집단에서도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인적 우화 점수의 발달적 증감이 명백히 나타나지 못했다. 이는 초기의 유치한 자신에 대한 환상(불멸감)과 중기 이후의 자아정체의 추구와 관련된 “나”에 대한 자리매김(독특감)이 내용적으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대학 집단이 그 연령의 대표적인 사례보다는 좀더 우월한 경험이 많았던 집단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성공관련 경험이 더 많았을 수 있고 그 결과 진능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이유는 먼저, 개인적 우화에 대한 구성적 정의의 문제와 본 연구의 대학 집단의 대표성의 문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 우화의 하위 영역이 청소년 초기에서부터 후기까지의 전반적인 발달 과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상상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의 두 하위 구인이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개념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의와 그 측정방법, 즉 척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상상속의 청중은 자신을 평가하는 타인의 반응에 민감한 경향을 일컫는 반면에, 개인적 우화는 이런 경향에서 파생된 혹은 동시발생적으로 생긴 자신에 대한 비합리적 믿음을 말한다. 따라서 두 구인 간에는 어느 정도의 관련성과 함께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에서 이런 관련성과 차이점에 대해 거의 보고하지 않았다. 단, 몇몇 연구를 살펴보면, 상상속의 청중은 사회적 기술의 미숙, 수줍음, 신경과민(Cohn et al., 1988), 의존성(Hauck et al., 1986), 그리고 부정적 자아개념(Mullis et al., 1988), 낮은 자존심과 자아발달 수준(Lapsley et al., 1988)등과 관련을 보였다. 반면에 개인적 우화는 자살상념 및 우울감과 부적 관계(Cole, 1988)를 보였다. 그리고 국내 연구(김

인경과 장근영, 1992)에서 이들 구인 간의 상관이 .15에서 .25로 매우 낮았다. 그러므로 이 두 구인의 관계에 대해 보다 명확한 제정의가 필요하다.

연령 증가에 따른 가족 체계의 변화에 관해서 살펴본 결과는 전반적인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에 있어서 고교생 피험자들이 자신들을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특히 시간과 친구관계 그리고 여가활동의 참여에 있어서 가족으로부터 제한을 받고 그리고 가족내의 자신들의 영향력도 적은 것으로 지각했다. 단 통제에 있어서는 중2, 3학년의 경우 가족으로부터 통제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했다. 이런 결과는 청소년 자녀를 둔 우리나라 가정환경이, 대학입시라는 지나친 사회적 압력으로 청소년들 뿐 아니라 이들을 둔 가정 전반의 심리적 상황이 긴장한 가족 환경 유지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해석해 보았다. 그래서 청소년기 발달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심리적 성장을 도모하기 보다는 사회 제도적 압력에서 파생된 독특한 문화 분위기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통한 자신과 타인에 대한 경험적 이해를 할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반면에 다소 입시의 압력에서 덜 느끼는 청소년 초기의 중학 집단은 타 집단에 비해 자신들의 심리적 독립을 추구하고 있어 이런 욕구로 인해서 가족의 통제를 상대적으로 크게 느낀다고 해석해 보았다. 이런 문제는 고교생들과 이들을 둔 가족을 동시에 면접하여 이들의 발달적 환경을 살피고 중학생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에 대한 욕구를 조사한다면 이런 해석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 2. 가족 체계 유형에 의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본 연구에서 가정된 가족관계와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간의 곡선적 관계(가설 1)는 기각되었다. Olson 등의 순환모형(CM)에 따른 기능적/역기

능적 가족관계와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 U 곡선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CM에 의해 분류된 가족유형에 따른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경향은 이탈가정이 밀착 가정에 비해 그리고 경직된 가정이 혼돈된 가정에 비해서 낮은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탈과 경직 가정을 극단의 가정으로 분리하는 이론과는 다소 차이나는 결과다. 그러나 CM의 분류에 있어서 분류의 기준점이 절대적이기 보다는 표집의 측정치에 따른 상대적 방식이므로 본 연구에서 이탈이나 경직으로 분류된 가정에 대한 정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에 대한 일반 피험자의 적용을 다시 고려해보았다. 본 연구의 피험자는 일반적인 청소년 집단으로서, 지나치게 극단적인 유형의 가족 형태를 가질 경우가 거의 희박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가족 관계에 대해 일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결과에서도 곡선 관계가 아닌 직선 관계를 보고하는 경우(정은희, 1992; 한미선, 1987; Hoffman, 1984; Lopez, Campbell & Watkins, 1986)가 많았다. 다시 말해서 일반 집단의 경우 그들이 속한 가정이 극단적 환경에 속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들의 반응은 직선 관계에서 더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족관계와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간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해보면,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애착이 클수록 그리고 구성원간의 역할관계의 자율성이 높을수록 상상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는 증가했다. 그래서 기능적 가족 관계가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증가에 관여한다는 결론을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기능적 가족 관계가 청소년 발달의 최적 환경이라는 Olson 등(1979, 1983)의 관점에 비추어 볼때, 이런 결론은 일관성이 없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동시에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 부정적 경험에 의한 발달의 부산물이라기 보다는 이 시기의 보편적 현상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부정적 혹은 긍정적 영향에 대한 가치 판단을 접어둔 채 청소년 발달의 일시적 현상으로 이해한다면, 본 연구결과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청소년기는 퇴행과 발달이 교차적으로 나타나며 이런 퇴행이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유일한 시기(Blos, 1967)라는 견해가 더 설득력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경험적 연구를 통해 이런 견해의 진위를 검증해야 한다.

### 3.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가족 내의 관계 형성의 도구가 되는 부모와 청소년 간의 의사소통의 정도를 조사했다. 이 결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아버지들은 어머니들에 비해 청소년들과의 대화가 부족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개방적 의사소통은 감소하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증가했다. 그리고 고교생의 경우에는 아버지와는 개방적 의사소통이 가장 적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가장 컸다. 어머니와 청소년 간의 대화량은 비교적 많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했다. 특이한 사항은 모든 면에서 취약한 고교생의 경우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감소하지 않았으며 전반적인 대화의 양도 감소하지 않았다.

이런 의사소통의 변화는 자녀의 성장에 따른 부모와의 대화량의 변화를 보여줄 뿐 아니라 청소년기에 줄어든 부모와의 대화를 보충해줄 또 다른 대화 대상의 제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단순한 대화의 양이외의 대화의 주제와 대화과정의 영향력의 방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상속의 청중은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관련되어 빈약한 문제 해결 기술을 지닌 부정적 의사소통이 대인관계 과정의 기술과 이해과정의 발달에 적절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

족 뿐 아니라 대인관계의 상호작용 도구가 되는 의사소통의 량과 방식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하며 단순한 의사소통의 량이나 방식이외의 내용과 심리적 만족도를 함께 조사하여 피험자의 주관적 대화경험을 명세하고 이에 대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관련성과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4.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안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대인관계의 기초적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과 부모와의 관계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설명변인으로 삼은 초기 연구다. 가족체계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라는 복잡한 대상을 조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 피험자이외의 상호작용의 주요 대상인 부모의 응답을 동시에 조사하는 경우보다 타당한 가족관계 유형과 주관적인 자신의 가족에 대한 만족도 등을 알 수 있고 실제적인 상호작용의 형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자아정체의 확립 등의 청소년기 발달과제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청소년 발달 연구의 핵심이 되는 연구들과도 관련되며 우리나라 연구결과들에서 나타나는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차이를 밝히는데 기여할 것이다. 즉 청소년기 발달과제를 청소년들에게 부여하는 사회적 기대와 압력의 정도에는 문화적 차이가 있으며 특정 발달과제에 따라서는 상대적 비중이나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청소년 발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생 전반에서 청소년기 발달이 지니는 상대적 중요성 그리고 다른 인생 시기와의 연계할때 청소년기의 다소 퇴행적 혹은 일탈적 행동 변화가 지니는 의미를 고려해야한다.

## 참 고 문 헌

- 김인경과 윤진(1988).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에 관한 연구-인지발달,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7(1), 54-62.
- 김인경과 장근영(1993).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관련 변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4(1), 143-156.
- 민혜영(1990). Circumplex Model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은주(1992). 자의식과 부정적 생활경험이 대학생의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진, 김인경, 및 김길청(1989). 청소년 비행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발달의 관계. 형사정책, 4, 67-96.
- 장근영과 윤진(1993). 분리개별화 과정 및 역할취득 수준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4(1), 157-176.
- 정명희(1987).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상진(1993).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자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2), 24-33.
- 최상진과 유승엽(1992).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2), 137-157.
- 한미선(1987). 한국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적응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상분(1992). 아동의 자아 개념과 가족체계의 기능유형.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dams, G. R., & Jones, R. M.(1982). Adolescent egocentrism : Exploration into possible contributions of parent-child relation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1, 25-31.
- Adams, G. R., & Jones, R. M.(1981). Imaginary audience behavior : A validation study.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 1-10.
- Alessandri, S. M., & Wozniak, R. H.(1987). The child's awareness of parental beliefs concerning the child : A developmental study. *Child Development*, 58, 316-323.
- Alexander, J. E., & Barton, C.(1976). Behavioral systems therapy for families. In D. H. Olson(Ed.), *Treating relationships*. Lake Mills, IA : Graphic.
- Anolik, S. A.(1981). Imaginary audience behavior and perceptions of parents among delinquent and nondelinquent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0, 443-454.
- Barnes, H., & Olson, D. H.(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Minnesota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erndt, T., & Hoyle, S. G.(1985). Stability and change in childhood and adolescent friendship. *Development Psychology*, 21, 1007-1015.
- Blos, P.(1962). *On adolescence*. Glencoe, IL : Free Press.
- Collins, W. A.(1990).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the transition to adolescence : Continuity and change in interaction, affect, and cognition. In R. Montemayor, G. R. Adams, & T. P. Gullotta(Eds.),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 A transitional period?* Newbury Park, CA : Sage Publications.
- Ditton, P., Green, R., & Singer, M. T.(1987). Communication deviance : A comparison between parents of learning-disabled and normally achieving students. *Family Process*, 26, 75-87.
- Elkind, D.(1978). Understanding the young adolescent. *Adolescence*, 13, 126-135.
- Elkind, D.(1967). Egocentrism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38, 1025-1034.
- Elkind, D. & Bowen, R.(1979). Imaginary audience behavio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5, 33-44.
- Emmerich, W., Goldman, K. S., & Shore, R. E.(1971). Differentiation and development of social nor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8, 323-353.
- Feldman, S. S., & Gehring, T. M.(1989). Changing perceptions of family cohesion and power across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9, 1034-1045.
- Feldman, S. S., Rubenstein, J. L., & Rubin, C.(1988). Depressive affect and restraint in early adolescents : Relationships with family process, and friendship support.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8, 279-298.
- Galvin, K. M., & Brommel, B. J.(1982). *Family communication*. Glenview, IL : Scott, Foresman.
- Goossens, L.(1984). Imaginary audience behavior as function of age, sex, and formal operational thinking. *International Jour-*

- 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7, 77-93.
- Gray, W. M., & Hudson, L. M.(1984). Formal operations and the imaginary audi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0, 619-627.
- Grotevant, H. D., & Cooper, C. R.(1986). Individuation in family relationships : A perspective on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of identity and role-taking skill in adolescence. *Human Development*, 29, 82-100.
- Grotevant, H. D., & Cooper, C. R.(1985). Patterns of interaction in family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 of identity exploration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6, 415-428.
- Hartup, W.(1983). Peer relations. In E. M. He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NY : Wiley.
- Hauser, S., Powers, S., Noam, G., Jacobson, A., Weiss, B., & Follansbee, D.(1984). Familial contexts of adolescent ego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28, 459-468.
- Hill, J., Holmbeck, G., Marlow, L., Green, T., & Lynch, M.(1985). Menarchial status and parent-child relations in families of seventh-grade girl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 314-330.
- Hoffman, J. A.(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2), 170-178.
- Hunter, F. T.(1984). Socializing procedures in parent-child and friendship relations during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0, 1092-1099.
- Hunter, F. T.(1985a). Adolescents' perceptions of discussions with parents and friend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433-440.
- Hunter, F. T.(1985b). Individual adolescents' perceptions of interactions with friends and par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5, 295-305.
- Lapsley, D. K., Fitzgerald, D. P., Rice, K. G., & Jackson, S.(1989). Separation-individuation the "new look" at the imaginary audience and personal fable : A test of an integrative model.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4, 483-505.
- Lapsley, D. K., Milstead, M., Quintana, S. M., Flannery, D., & Buss, R. R.(1986). Adolescence egocentrism and formal operations : Tests of a theoretical assump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2, 800-807.
- Lapsley, D. K., & Murphy, M. N.(1985). Another look at the theoretical assumptions of adolescent egocentrism. *Developmental Review*, 5, 201-217.
- Lapsley, D. K., & Rice, K.(1987). The "new look" at the imaginary audience and personal fable : Toward a general model of adolescence ego development. In D. K. Lapsley, & F. C. Power(Eds.), *Self, ego, and identity: Integrative approaches*. N. Y. : Springer.
- Leigh, G. K.(1986). Adolescent involvement in family systems. In G. K. Leigh & G. W. Peterson(Eds.), *Adolescents in families*. Cincinnati, OH : South-Western.

- Leigh, G. K., & Peterson, G. W.(1986). *Adolescents in families*. Cincinnati, OH : South-Western.
- Lerner, R. M.(1986). *Concepts and theories of human development(2ed.)*. NY : Random House.
- Lopez, F. G., Campbell, K. L., & Watkins, C. E. Jr.(1986). Depression,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college adjustment : An investigation of sex differences.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33(1), 52-56.
- Maccoby, E., & Martin, J.(1983). Socialization in the family. In E. M. He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NY : Wiley.
- Minuchin, P., & Shapiro, E.(1983). The school as a context for social development. In E. M. He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N. Y. : Wiley.
- Montemayor, R.(1983). Parents and adolescents in conflict : All families some of the time and some families most of the tim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 83-103.
- Montemayor, R., Brownlee, J.(1987). Fathers, mothers, and adolescents : Gender-based differences in parental role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281-291.
- Montemayor, R., & Hanson, E.(1985). A naturalistic view of conflict between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and sibling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5, 23-30.
- Muuss, R. E.(1988). *Theories of adolescence* (5th ed.). NY : Random House.
- Olson, D. H.(1986). Circumplex model : VII Validation studies and FACES III. *Family Process*, 25, 337-352.
- Olson, D. H., Portner, J. & Leavee, Y.(1985). *FACES III*. Family Social Science, St. Paul, Minnesota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Olson, D. H., Russell, C. S., & Sprenkle, D. H.(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0-83.
- Olson, D. H., Russell, C. S., & Sprenkle, D. H.(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 I.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s. *Family Process*, 18, 3-29.
- Papini, D. R., & Sebbey, R. A.(1987). Adolescent pubertal status and affective family relationships : A multivariate assess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1-15.
- Pesce, R. C., & Harding, C. G.(1986). Imaginary audience behavior and its relationship to operational thought and social experi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6, 83-94.
- Petersen, G. W., & Leigh, G. K.(1990). The family and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In T. P. Gullotta, G. R. Adams, & R. M. Montemayor(Eds.). *Developing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Newbury Park, CA : Sage Publications.
- Petersen, G. W., & Rollins, B. C.(1987). Par-

- ent-child socialization. In M. B. Susman & S. K. Steinmetz(Eds.), *Handbook of marriage and family*. NY : Plenum.
- Pipp, S., Shaver, P., Jennings, S., Lamborn, S., & Fisher, K. W.(1985). Adolescents' theories about the development of their relationships with par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991-1001.
- Protinsky, H., & Wilkerson, J.(1986). Ego identity, egocentrism, and formal operations. *Adolescence*, 21, 461-466.
- Robertson, J. F., & Simmons, R.(1989). Family factors, self-esteem, and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1, 125-138.
- Rogoff, B., Sellers, M., Pirrotta, S., Fox, N., & White, S.(1975). Age of assignment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to children : A cross-cultural survey. *Human Development*, 18, 353-369.
- Rosenroll, D. A.(1987). Early adolescent egocentrism : A review of six articles. *Adolescence*, 22, 791-802.
- Selman, R. L.(1980). *The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 Developmental and clinical analysis*. NY : Academic Press.
- Smetana, J. G.(1988). Concepts of self and social convention : Adolescents' and parents' reasoning about hypothetical and actual family conflicts. In M. R. Gun-  
nar, & W. A. Collins(Eds.), *Develop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adolescence*,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 Steinberg, L.(1989). Pubertal maturation and parent-adolescent distance : An evolutionary perspective. In G. R. Montemayor, & T. P. Gullotta(Eds.), *Normal adolescent development*. Washington, DC. : Carnegie Council on Adolescent Development.
- Steinberg, L.(1988). Reciprocal relation between parent-child distance and pubertal matu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122-128.
- Steinberg, L.(1987). Impact of puberty on family relations : Effects of pubertal status and pubertal tim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3, 451-460.
- Steinberg, L.(1981). Transformation in family relations at puberty. *Developmental Psychology*, 17, 833-840.
- Steinberg, L. D., Greenberger, E., Jacobi, M., & Garduque, L.(1981). Early work experience : A partial antidote for adolescent egocentris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0, 141-157.
- Steinmetz, L.(1987). Family violence, past, present, and future. In M. Sussman & L. Steinmetz(Eds.), *Handbook of Marriage and Family*. NY : Plenum.

# **The Adolescence Egocentrism and its Relationship with Family System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Kyung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the family system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with the adolescence egocentrism. Five hundreds and seventy Korean boys from the age of 13 to 23 answered the Adolescence Egocentrism Scale, the FACES III and the FACI. The results revealed that imaginary audience of the middle and the late adolescents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early,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the previous Korean studies. The analyses of functional family system showed that the families with 16 or 17 year-old boys provided environments lacking in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and also fathers of which used less open and more problemed communication. In the relationship of family system with the adolescence egocentrism, it was found that boys with the enmeshed level of family cohesion and the chaotic level of family adaptability were higher than those the lower level in adolescence egocentrism. The lower DFC score was, the less adolescence egocentrism was. In addition, the problemed communication with parent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adolescence egocentrism. These results suggest that family system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s important in acquiring the skills and knowledge of interpersonal interactions and might be related with the adolescence egocentrism.